

<서평>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정중호,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

안교성*

1. 서론

구약성서학자인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정중호 교수가 은퇴를 즈음한 2022년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이하 본서)를 출간했다. 한국교회는 성경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경기독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이고, 성경의 역사 특히 성경 번역사는 성서신학과 한국교회사의 핵심적인 분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성경 역사 혹은 성경 번역사는 연구 소외 분야 중 하나였고, 통사적 시도는 매우 부족했으며, 더구나 천주교와 개신교를 망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의 출간은 성경 번역사, 성서신학, 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첫째, 저자는 구약성서학자인 동시에 아시아기독교학자이다. 저자는 기존의 한국 성경 번역사가 개신교 성경 번역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추세를 교정하고자, 한국 성경 번역사에 대한 논의를 천주교, 나아가 아시아기독교 선교 초기로 소급함으로써, 균형 잡힌 한국 성경 번역사를 구성하려고 했다.¹⁾ 그리고 저자는 성경 번역을 성경 수용, 번역, 해석이라는 맥락 속

*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한국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kyosahn@hanmail.net.

1) 다음 논문도 성경 번역의 역사를 아시아기독교 초기로 소급하고 있으나, 한국의 성경 번역은 천주교 성경 번역을 제외한 개신교 성경 번역만을 다룬다. 이효림, “중(中)·한(韓) 성서 번역의 역사와 십계명(출 20:1-17) 번역의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2018).

에서 접근했다. 둘째, 저자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대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다.²⁾ 그는 먼저 시대별 연구 논문들을 출간했고, 그 결과를 집대성하여 본서를 출간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저자의 평생 연구 특히 연구 성숙기의 성과가 집대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라는 제목부터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도발적이다. 본서는 성경 번역의 기원과 성경 번역의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본서는 한국 성경 번역의 역사가 개신교 중심으로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150년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300년에 달한다는 주장을 천명했다. 이런 주장은 본서의 목적에도 드러난다.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본 저서의 목적은 존 로스(J. Ross)가 번역한 1882년(1882년, sic.)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그리고 1898년 구약의 『시편촬요』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이미 성경이 한국 땅에 들어왔으며 번역되고 해석되어 왔다는 역사를 추적하여, 1900년 이전 한국 성경 번역과 해석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것이다.”³⁾

둘째, 선교 과정에서 천주교는 교리를 중심으로 하여 교리서 번역을 먼저 시도하고, 개신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 번역을 먼저 시도한다는 통념이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성경 번역사는 주로 개신교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 번역사는 성경을 낱권이나 전서를 기준으로 하면 개신교가 천주교에 앞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경의 일부를 기준으로 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천주교는 1977년에서야 비로소 에큐메니컬 성경인 『공동번역』을 통해 첫 번째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의 일부는 18세기 말부터 번역되기 시작했다. 저자가 본서의 부제를 ‘번역의 역사’가 아닌 ‘번역과 해석의 역사’라고 붙인 것도 성경전서가 아닌 성경의 일부를 주목할 필요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추정된다.

여하튼 본서의 출간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의 후속 연구는 본서의 주장과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든 않든 간에, 본서가 던진 두 가지 질문 즉 한국의 성경 번역의 기원과 범위라는 질문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정중호, “고려시대 기독교”, 『신학사상』 160 (2013), 109-130; “18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19:4 (2013), 318-347; “18세기 이전 창세기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20:2 (2014), 12-40; “19세기 이전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21:2 (2015), 65-90; “한문성경기(漢文聖經期)와 성경 해석”, 『신학사상』 165 (2014), 91-126; “19세기 구약성경 번역과 해석의 역사 - 『고경』(『고성경』)과 『성교감략』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68 (2015), 7-41; “17-18세기 한국 선교와 지해문학: 『칠극』, 『기인십편』, 『성경직희』를 중심으로”, 『선교와신학』 39 (2016), 297-326.

3)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 12.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본서의 머리말에도 나온다.

2. 『한국 성경 300년』 내용과 분석

본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곧 제1부 성경 수용의 여명기, 제2부 17-18세기 성경 번역과 해석, 제3부 19세기 성경 번역과 해석이다. 간단히 말해, 제2부는 천주교의 초기 성경 번역 역사를 다루고, 제3부는 19세기의 천주교 및 개신교의 성경 번역 역사를 다룬다. 따라서 본서는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천주교 및 개신교의 성경 번역 역사는 다루지 않는다. 본서가 한국교회 성경 역사 혹은 한국교회 성경 번역사의 통사적 시도를 한 연구물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를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사적 성격에서 볼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20세기 이후의 연구는 축적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다. 장차 저자에 의해서든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든 최근까지 포함한 한국 성경 번역사에 관한 통사가 나올 필요가 있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든 간에 본서는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편 제2부와 제3부의 성경 번역 역사를 기독교 초기 특히 아시아기독교 초기와 연결하기 위하여, 제1부는 성경 수용에 대해서 다룬다. 제1부는 제목 그대로 ‘성경 번역과 해석’의 시기라기보다는 ‘성경 수용’의 시기이다.

본서와 본서에서 다루는 문서들의 역사적 좌표를 잡기 위해, 먼저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사를 간단하게 개관하자. 한국교회의 경우, 사료로 입증할 수 있는 성경 번역사는 천주교로부터 시작된다. 크게 말해, 천주교 이전의 아시아기독교(혹은 경교)의 성경 번역사는 추정 수준에 머문다. 이성우에 의하면, 천주교의 성경 번역사는 크게 4시기로 나뉜다. 제1기 『성경직해광익』부터 『사사성경』 전까지(1784-1909), 제2기 『사사성경』부터 『복음성서』까지(1909-1948), 제3기 선종완 신부의 구약성서 번역부터 『공동번역 성서』까지(1958-1977), 제4기 『200주년 신약성서』에서 『신약성서 새번역』까지(1974-2002)이다.⁴⁾ 2005년에 『성경』이 완간되었으니, 시기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신교의 성경 번역사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학계의 공감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 『예수성교누가복음 전서』부터 『성경전서』까지(1882-1911), 제2기 『새번역신약』부터 『공동』까지(1967-1977), 제3기 『공동』부터 『새한글』까지(1977-2024)이다.

4) 이성우, “한국인의 주체 의식과 성서 번역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 천주교회의 우리말 성서 번역사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5 (2003), 33-60.

2.1. 서론

저자는 서론에서 본서의 목적뿐 아니라, 본서의 핵심적 관점을 구성하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한다. 본서가 이 시각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각은 4가지로, “한문 번역 성서의 특별한 의미”⁵⁾, “교리서를 포함한 신앙서적과 다양한 서학서(西學書)에 부분적으로 포함된 성경 내용이 있다”⁶⁾, “만주 간도지역을 역사적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⁷⁾, “한국인 네트워크”⁸⁾ 등이다.

저자는 첫째 시각에서 동아시아가 일종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임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이런 시각에서 교회사, 선교 역사, 성경 번역을 포함한 문서 번역사를 연구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각은 학계의 공감대가 있는 시각이다.

둘째 시각은 성경 번역을 성경의 전서나 날권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성경의 일부도 중시하자는 입장이다. 이것은 저자의 기본 시각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에 토대하여, 저자는 천주교의 성경 번역사를 천주교가 처음으로 성경의 날권을 번역한 『사사성경』 이전으로 소급시킨다. 따라서 천주교 문서 번역사에서 중요한 『성경직해광익』과 『사사성경』 사이의 많은 문서를 연구하고 소개하였다.

셋째 시각은 한국의 범위 특히 한국인의 범위라는 문제를 성경 번역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만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만주 관련 연구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아직까지 연구 소외 분야이기에 아직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조심스럽다. 저자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담한 주장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사료에 근거한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자는 만주에 거주한 한국인의 선교적 역할, 한국의 성경 번역사와의 관련 등을 언급하고⁹⁾, 특히 뽀와로(Louis Antoine de Poirot, 1735-1813, 뽀아로, 賀淸泰) 신부에 의해 번역된 만주어 성경 이외에 한문 번역 성경을 한국인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내의 정약종이 『주교요지』에서 자세한 성경 지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구약성경을 읽었을 가능성까지 언급한다.¹⁰⁾ 그러나 저자도 언급했듯이 뽀와로의 만주어 성경과 한문 성경이 필사본으로 존재했기에, 만주 거주 한국인

5)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18.

6) Ibid., 19.

7) Ibid., 20.

8) Ibid., 22.

9) Ibid.

10) Ibid., 137.

이 ㅼ와로의 만주어 성경이나 한문 성경을 접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들이 이 필사본을 취득하고 더구나 만주어까지 익혀 만주어 성경을 해독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¹¹⁾

넷째 시각은 새로운 교회사 혹은 기독교사 담론으로 대두된 ‘세계기독교사[학]’가 강조하는 시각이다. 이것 또한 학계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시각이다. 앞으로 이런 시각에 의해서 성경 번역사를 비롯한 아시아기독교사가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민족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 인종, 국경, 언어를 포함한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고, 따라서 성경 번역도 이런 광범위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선교 역사에서 문서 선교의 역사는 선교가 먼저 이뤄진 선교지의 성과가 후속 선교지에서 활용되는 데 착안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2. 제1부

제1부는 본격적인 성경 번역사라기보다는 성경 수용사요 일종의 기독교 전래사이다. 저자는 성경 번역이 이뤄지기 이전에 이미 한국과 기독교의 조우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1부는 경교와 천주교의 도래에 대해서 다루는데, 간략한 아시아기독교사적인 성격을 지닌다.

경교는 고려시대 이전과 고려시대로 양분해서 다뤄진다. 저자는 고려시대 이전에 대해서는 당대(唐代)에 한국과 일본에 경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조선시대 문헌이 경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소개한다.¹²⁾ 경교는 원대(元代)에는 에리케운(야리가온) 등으로 불리는데, 에리케운(야리가온)이 경교만 가리키는지 혹은 경교와 천주교를 모두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최근 여러 학설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 본서 포함 —, 에리케운(야리가온)을 주로 중국 역사서를 토대로 복 혹은 복음이란 의미와 연결하는 학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에리케운(야리가온)의 어원을 몽골의 ‘거룩한’이란 뜻을 지닌 ‘아리온’(아리온의 몽골고어는 아리곤)으로 연결하는 입장도 있다.¹³⁾ 이런 해석에 따르면, 에리케운(야리가온)은 결국 ‘거룩한[것]’ 즉 ‘종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경교든 천주교든 모두를 가리

11) 설련(薛蓮), “만주어 『신약전서』 - 중국 대련도서관 소장본 -”, 송강호 역, 「성경원문연구」 30 (2012), 249-262.

12) 중국의 경교 문서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 책을 볼 것. M. Nicolini-Zani, *The Luminous Way to the East: Texts and History of the First Encounter of Christianity with Chi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13) 이 점을 상기시켜 준 김봉춘 박사(몽골국립대학교 박사)에게 감사한다.

킬 가능성이 있다.¹⁴⁾

또한 저자는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한몽관계를 통해서 정동행성 평장정사로 부임하여 고려의 노예제도를 개선하려 했던 활리길사 등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했다.¹⁵⁾ 그러나 아쉽게도 제1부가 다루는 시기의 한국과 기독교(경교와 천주교 모두)의 조우는 한국교회사 분야에서 아직까지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추정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전반적으로 말해, 제1부는 기존의 연구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1부는 아시아기독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다루기보다는 차라리 성경 번역사의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제2부와 제3부를 확대했다면 더 나았으리라고 여겨진다.

한편 천주교에 있어서, 저자는 천주교의 기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생적 신앙공동체 기원설이 아니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진왜란 세스페데스 신부 도래설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성경 번역사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교회의 기원과 선교의 기원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연관된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역사신학적 해석이 필요한데,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다. 다만 선교의 목적 및 실효성 그리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세스페데스 신부 도래설은 국내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1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칭기즈 칸에 관한 것들이라서 굳이 언급한다. 하나는 칭기즈 칸의 이름을 어원분석하면서, 칭기즈 칸=칭+기즈+칸으로 나누고 기즈가 기독교 이름이기에 칭기즈 칸이라는 이름도 기독교 이름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참신한 주장이라서 근거를 제시했으면 한다.¹⁶⁾ 다른 하나는 칭기즈 칸과 기독교 종족으로 알려진 케레이트족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칭기즈 칸을 케레이트족 양자 혹은 출신이라고 하는데¹⁷⁾, 양자나 출신이 아니라 동맹 관계이다.¹⁸⁾ 따라서 칭기즈 칸이 기독교화되기보다는 기독교가 칭기즈 칸의 종교 정책에 지휘를

14) 관련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중국천주교 역사를 평생 연구해 온 서양자도 야리가온이 경교와 천주교를 모두 가리킨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연, “『중국천주교회사 베일을 벗기다』 펴낸 서양자 수녀”, 『가톨릭신문』 2023.11.19.,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311140220019> (2025.01.30.). 또한 다음 책을 볼 것. 서양자, 『중국천주교회사 베일을 벗기다』 (서울: 순교의맥, 2023).

15) 조원, “원제국의 법제와 고려의 수용 양상”, 남종국 외, 『몽골 평화시대 동서문명의 교류: 아비뇽에서 개경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304-306. 이 글은 활리길사를 ‘고르기스’로 표기한다.

16)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55-56.

17) Ibid., 55, 69.

18) 이 점 역시 『몽골비사』 2권 69를 통해 재확인해준 김봉춘 박사에게 감사한다.

받게 된다. 몽골 왕족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칭기즈 칸이 아니라 기독교 종족을 모친으로 둔 그의 후손들이다.

2.3. 제2부

제2부는 17-18세기 성경 번역과 해석을 다루면서, 시대적 배경, 한국인이 수용한 기독교 문헌과 한국인의 저술, 성경 번역과 해석(구약성경, 외경, 신약성경)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사실상 천주교의 성경 번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제2부는 한국 성경 번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을 위해서 먼저 중국의 한역서학서 번역사를 다룬다. 최근에는 인근 선교지의 선교 성과의 상호 영향에 착안하여, 국가별 역사 연구를 넘어서 권역별 역사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가령 동아시아의 천주교 선교 역사를 연구한 로스(A. C. Ross)는 해당 국가들을 동시에 조망하는 공관적(synoptic) 시각을 강조한 바 있다.¹⁹⁾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선교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사를 이해하려면 중국교회사와 일본교회사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저자가 한국 성경 번역사의 배경이 되는 중국의 한역서학서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다루는 가운데 단편적으로 제공하기에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역서학서와 한국 천주교의 성경 번역사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

본서와 관련하여 중국 서학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서학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곧 서학(西學)과 서학의 일부로 서양종교에 관련된 서교(西敎)이다.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은 후자에 있다. 후자는 일반 대중(혹은 초신자)을 대상으로 한 변증적 기능을 지닌 변증서적과 신자를 대상으로 한 목회적 기능을 지닌 종교서적으로 나눌 수 있다. 변증서적은 일반 서학과 서교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고, 따라서 변증서적은 연구자에 따라 종종 다른 범주에 배당되기도 한다. 한편 종교서적은 성경과 신앙생활과 관련된 신앙서적으로 나눌 수 있다. 신앙서적은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하위범주에 속한다. 한국 천주교의 경우, 본격적인 성경 번역은 후대에 이뤄지지만, 신앙서적을 위해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담은 복음서 번역이 불가피하다. 한국 천주교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직해광익』도 복음서 번역과 직접 관련 있다.

19) A. C. Ross, *A Vision Betrayed: the Jesuits in Japan and China 1542-1742* (Maryknoll: Orbis, 1994).

둘째, 천주교의 성경 번역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는 적어도 성경 번역의 목적이 성경 번역 자체가 아니라 신앙서적 특히 교리서적을 위한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천주교는 성경을 교도권을 통해서 가르치고 접하게 하기 때문에, 개신교와 달리 성경 본문만을 번역하지 않고 주를 다는 경우가 많다. 한국 천주교가 성경이 주 없이 번역되었다는 이유로 주 달린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도 했다. 따라서 천주교의 성경 번역에 있어서,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경(經)과 해설에 해당하는 잠(箴)을 구분하는 구분법이 중요한 구조를 이룬다.²⁰⁾ 저자는 잠을 다루지만, 경과 잠의 구분법은 소개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중국한역서학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지면상으로나 서평 성격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부록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부록 1>은 천주교의 성경 번역(보다 광범위한 문서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학징의』의 부록인 ‘요화사서소화기’(妖畵邪書燒火記)에 나타난 문서 목록을 최근 완간된 조광의 『역주 사학징의』를 이용하여 전부 소개한다.²¹⁾ <부록 1>은 요화사서소화기에 따라 출처 순서대로 소개하되, 한글본과 한문본(*가 달린 문서)을 구별한다. <부록 2>는 ‘요화사서소화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최중복이 그의 논문에서 해당 문서들을 한글본과 한문본으로 나누고, 한글본과 한문본을 각각 문서 성격에 따라 분류한 표를 소개한다.²²⁾ <부록 2>는 한글본은 성서, 전례서, 성사서, 기도서, 신심묵상서, 교리서, 성인 등 전기, 기타로 나누고, 한문본은 성서, 전례서, 기도서, 신심묵상서, 교리서, 성인전기, 기타로 나눈다. <부록 3>은 최근 발간된 서학 문서를 광범위하게 소개하는 자료집의 목차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중국한역서학서 및 관련 실학서적을 소개한다.²³⁾ <부록 3>은 총서, 종교, 과학, 지도(1권), 종교, 과학(2권), 논저, 논설(3권), 논저, 논설(4권), 문집(5-1권), 연행록, 백과전서(5-2권), 문집(6권) 등으로 분류된다. 대략 이 세 가지 부록을 이용하면, 저자가 소개하는 문서의 성격과 역사적 좌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 서원모, “『성경직해』(聖經直解)의 성경해석과 교부·고전 문헌 인용 양상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69 (2024), 143-186; 서원모, 광문석, “17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의 복음서 한문 번역 연구: 『天主降生言行紀略』, 『天主降生聖經直解』와 『天主降生出像經解』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9:2 (2017), 115-157.

21) 조광, 『역주 사학징의 I』 (서울: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1); 『역주 사학징의 II』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2022).

22) 최중복, “천주교 서적이 초기 한국천주교회 순교복자들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 - ‘요화사서소화기’에 기록된 천주교 서적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5).

2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편, 『조선시대 서학 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파주: 경인문화사, 2020).

이제 제2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저자는 제1장 시대적 배경에 이어서, 제2장 한국인이 수용한 기독교 문헌과 한국인의 저술에 집중한다. 이 부분이 제2부의 핵심이다. 먼저 ‘한문성경, 만주어 성경, 한글 성경’ 부분에서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 따라 한문성경을 접하는 것을 ‘한문성경기’로 명명하고, 1900년까지로 설정한다.²⁴⁾ 따라서 한문성경이 한국기독교 초기에 영향을 미쳤기에,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한문 성경이 대두된 것도 설명한다.²⁵⁾ 그리고 한문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음, 구결, 언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²⁶⁾ 이것은 본서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만주어 성경에 대해서는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저자는 출간되지 않은 필사본 『만주어 구약성경』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송강호에 의하면 만주어 성경은 『신약전서』가 간행되었다.²⁷⁾ 저자는 한글 성경은 초기에 번역도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출간이나 배포 등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필사와 암송을 통해서 보급되었음을 강조했다.²⁸⁾ 이것도 본서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인이 수용한 기독교 문헌’과 ‘한국인의 저술’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중국한역서학을 소개하는데, 바셋역본도 소개한다. 바셋역본은 모리슨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바셋역본이 한국교회 성경 번역에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자는 한국인이 수용한 기독교 문헌 즉 서교 문서로 『성경직해』와 『성경광익』을 비롯하여 바셋역본에 이르기까지 총 22개를 소개한다.²⁹⁾ 관련 연구에 의하면, 당시 소개된 천주교 서적은 약 50개에 이른다.³⁰⁾ 저자가 소개하는 22개 문서 중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은 『성경직해』와 『성경광익』 이외에 5개였

24)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112.

25) Ibid., 117.

26) Ibid., 118-126.

27) 설련, “만주어 『신약전서』 - 중국 대련도서관 소장본 -”.

28)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137-142.

29) 『성경직해』와 『성경광익』, 『칠극』, 『천주강생언행기략』, 『성영속해』, 『천주실록』, 『천주성교십계직전』, 『기인십구』, 『기인십편』, 『교요서론』, 『수진일과』, 『지도자증』, 『성세주요』, 『삼산논학기』, 『주제군징』, 『주교연기』, 『영언여작』, 『직방외기』, 『기기도설』, 『교우론』과 『이십오언』, 『바셋역본』 등이다. 분류는 20개로 했지만, 1번과 19번에 각각 2권씩을 소개하여 총 22개가 된다.

30) 배현숙, “17-8세기에 전래된 천주교서적”, 『교회사연구』 3 (1981), 3-45; 원재연, “18세기 후반 북경 천주당을 통한 천주교 서적의 조선 전래와 신앙공동체의 성립”, 『동양한문학연구』 30 (2010), 53-81; 최중복, “천주교 서적이 초기 한국천주교회 순교복자들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 안종찬,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의 전례기도생활: 전례서와 기도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6). 최중복의 논문은 89쪽에서 배현숙의 연구를 토대로 도표를 제공한다.

고, 나머지는 대부분 번역되지 않았기에 한문 서적을 통해 내용만 전해졌을 뿐이다.³¹⁾ 저자가 이 부분에서 번역과 수용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저자의 논리의 흐름을 쫓아가는데 다소 혼란을 경험한다.

저자는 한국교회는 수용과 번역에 있어서 독자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가령 한국천주교는 『성경직해』와 『성경광익』을 합해 『성경직해광익』이라는 역본을 만들었다.³²⁾ 또한 한국인의 저술로 『주교요지』, 『십계명가』와 ‘천주공경가’를 소개한다. 한국인의 저술 중에서 그동안 이벽의 『성교요지』가 널리 알려지고 연구도 많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위조문헌설이 나왔는데, 다행히 본서는 『성교요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³³⁾

제3-5장은 각기 구약성경, 외경, 신약성경의 번역과 해석을 소개한다. 저자는 제3-5장에서 성서신학자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경 번역에 대해 심도 깊고도 다양하게 연구를 추진했다. 이 부분은 특히 저자의 기여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은 히브리성서 전통에 따라 삼분한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한역서학서와 한글 번역은 역시 『성경직해광익』이다. 『성경직해광익』은 『성경직해』 번역본과 『성경광익』 번역본을 편집하여 합본한 것으로 이해해 왔고, 최근에는 다른 책도 추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요화사서소화기에는 『성경직해』, 『성경광익』과 더불어 『성경직해광익』이 아닌 『성경광익직해』가 나온다. 『성경광익직해』와 『성경직해광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자는 『성경광익』이 앞서고 주가 되고, 후자는 『성경직해』가 앞서고 주가 되는 등 차이는 있으나 동일선상에 있다는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역주 사학정의』를 내놓은 조광은 전자와 후자는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하튼 『성경직해광익』은 그 자체가 널리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핵심적인 신앙서적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 『성경직해』로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성경직해』가 번역 출간 배포된 것을 1784년 이후 한국천주교의 교회 성장과 연결시키면서³⁴⁾, 성경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31) 저자가 『성경직해』와 『성경광익』 이외에 부분적으로나마 번역되었다고 밝힌 것은 『성영속해』, 『[천주성교]십계진전』, 『교요서론』, 『수진일과』, 『성세추요』이다.

32) 원순옥, “『성경직해』의 특수 어휘 연구”, 『한국말글학』 30 (2013), 121-142; 조현범, “한글 활판본 『성경직해』에 나타난 번역상의 특징”, 『장서각』 42 (2019), 270-301; 박인희, “『성경직해광익』과 초기 한국 기독교의 공동체적 전망”, 『성경원문연구』 50 (2022), 234-260.

33) 김현우, 김석주, “이벽의 「성교요지」(聖敎要旨)는 위조문헌인가?”, 『기독교사상』 729 (2019), 21-31.

34)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147.

2.4. 제3부

제3부는 19세기 성경 번역과 해석을 다루는데, 구성은 제2부와 동일하다. 즉 시대적 배경, 한국에서 수용한 기독교 서적과 한국인의 저술, 그리고 성경 번역과 해석 등 3부분이다. 19세기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모두 성경 번역에 나섰기 때문에, 성경 번역과 해석은 다시 천주교의 성경 번역과 해석, 개신교의 성경 번역과 해석으로 나뉜다.

저자는 시대적 배경에서 주문모 신부와 유방제 신부 등 선교사를 소개한다. 주문모 신부는 문서 번역에 기여했고, 유방제 신부는 한국인의 성직자 교육을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신학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을 추진하는데 기여했다.³⁵⁾ 성경 번역과 관련하여, 주문모 선교사가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어 오히려 문서 번역을 강하게 추진했다는 설도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 다룰 만한 주제이다. 저자는 천주교의 성경 번역에서 『고경』, 『고성경』, 『성교감략』, 『천주성교례규(틴주성교례규)』를 다뤘다. 기존에는 최초의 본격적인 성경인 『사사성경』이 주목을 받았다. 『사사성경』은 4복음서를 번역한 성경인데, 추후에 사도행전이 추가 번역되었다. 그런데 본서는 성경의 전서나 낱권 번역보다 성경의 일부 번역을 강조하는 입장이라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고경』, 『고성경』, 『성교감략』, 『천주성교례규』를 부각시켰다. 『고경』과 『고성경』은 거의 동일한 필사본이지만, 몇 가지 차이도 보인다.³⁶⁾ 저자는 『고성경』이 더욱 읽기 편한 번역을 했다는 점에서 『고경』의 후대본으로 이해한다. 『성교감략』은 신구약 주요 대목을 뽑은 것으로, 한문본은 1866년 작성되었고, 한글본은 1883년에 간행되었다.³⁷⁾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성교감략』은 성경 이외에 교회사도 수록되었다는 것이다.³⁸⁾

특히 저자는 구약학자로서 구약 번역에 관심을 보였다. 『고경』은 창세기를 다루고, 『천주성교례규』에 시편이 번역된 것을 강조한다. 『천주성교례규』는 신앙서적 중에서도 예식서였다. 『고경』은 번역자 미상으로, 소유자는 리샤르를 거쳐 뫼텔 주교에 이르렀는데, 리샤르의 이력을 볼 때, 로스 번역이 이뤄지기 이전에 만주나 중국 거주 한국인이 번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³⁹⁾ 그런데 저자는 『고경』의 번역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35) 오근, “초대 조선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임명으로 인한 다양한 상황들”,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3), 67.

36)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339.

37) Ibid., 344.

38) Ibid., 397.

39) Ibid., 338.

소개한다. 즉 『고경』이 노아의 아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종차별적 해석도 보이고 한국을 언급하는 민족주의적 성향도 보였다.⁴⁰⁾ 이에 대한 저자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가나안이 웃었으므로 책망하였는데 그로 인해 흑인이 노예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아시아와 ‘조선’이 언급되었는데 조선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라 하였다.”⁴¹⁾ 단 지파를 한국인과 연결하는 대중적 해석이 회자된 적이 있는데, 이미 『고경』부터 인류의 조상과 한국인을 연결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현지인의 수용, 번역, 해석에 나타난 토착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개신교의 경우는, 성경 번역도 이뤄졌지만, 신앙서적 번역 가운데 성경의 부분적 번역도 동시에 이뤄졌다. 저자는 선행한 천주교의 성경 번역이 개신교의 성경 번역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시사한다.⁴²⁾ 저자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로스를 언급한다.⁴³⁾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만주어를 먼저 배우고 그다음 한문을 배웠다는 사실이다. 한글로 신약성경을 번역한 로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만주는 한국의 역사적 영토이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와 친연성이 있는 만주어 번역과 만주어 기독교 서적이 한국 성경 번역과 해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⁴⁴⁾ 물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사료를 통한 입증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선교사들이 만주어 성경을 활용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만주어를 습득하고, 만주어 성경을 취득하고, 구체적인 활용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로스는 성경 번역에서 원본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이유에서(한국인 번역자와의 소통을 위해 서도) 한문 성경을 사용했는데, 굳이 만주어 성경을 이용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 선교사가 몽골어 성경 번역에 참여했고, 몽골어와 만주어는 언어학적으로 유사하고 만주가 몽골 문자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만주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이뤄진다면 한글 성경 번역 연구에 새 장이 열릴 것이다.⁴⁵⁾

40) Ibid., 343.

41) Ibid.

42) Ibid., 333.

43) Ibid.

44) Ibid.

45) 만주어 성경 이외에 만주어 그리스도교 문헌에 대해 소개한 최근 연구서로는 다음을 볼 것. 송강호, 『만주어 그리스도교 문헌 연구』(서울: 지식과교양, 2023). 본서는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NRF-2018S1A5A2A03039195) 성과물로, 연구과제명은 “19세기 중국어성경번역이 동북아시아 성경 번역과 문화와 언어생활에 끼친 영향”이다. 몽골어 및 만주어 성경 번역에 대한 한국인의 연구는 다음을 볼 것. 안교성,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에서 『몽

그리고 저자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번역상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용어 비교를 하는데, 인명과 지명을 비교한다.⁴⁶⁾ 천주교 문서는 『고경』과 『성교감략』, 개신교 문서는 『구약공부』(존스), 『회보』(아펜젤러), 『구약』(개신교 번역본)을 활용한다. 인명과 지명이 성경 번역 등 문서 번역에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학적 내용이 담긴 용어도 비교했다라면 더욱 광범위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아쉽다.

이 밖에도 『천주성교례규』의 시편과 피터스의 『시편촬요』와 개신교 성경인 『시편』(1906년)을 비교하면서, 천주교의 성경 번역이 개신교에 영향을 미친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저자가 제기하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경 번역상 관계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는 천주교의 신약 번역에 대해서 『사사성경』의 전 단계인 각 복음서 부분 번역을 언급한다. 곧 「성경마두」, 「성경말구누가」, 「성경요한」, 「성경수난」 등이다.⁴⁷⁾ 그리고 『성경직해광익』, 『성경직해』, 『개역개정』을 비교하는 대담한 시도를 하면서, 천주교의 성경 번역이 개신교의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친 것을 다시금 시사한다.

이후에는 저자는 선교사와 동역한 한국인 번역자의 면모를 통해서, 그리고 천주교의 중국한역서학서(특히 서교 문서)에 해당하는 개신교의 선교 문서들을 분석하면서, 개신교의 성경 번역에 대해 분석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것은 『구약공부』, 『의경문답』, 『성경도설』, 『위원입교인규도』, 『인가귀도』,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시편촬요』, 『구약촬요(舊約撮要)』, 『조만민광(照萬民光)』, 『신약전서』(1900년) 등이다. 중국 성경과 한글 성경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밝혀낸다. 특히 한글 성경이 인명, 지명 등에 옆줄을 사용하는 것 등을 지적한다.⁴⁸⁾ 결론적으로 저자는 로스의 번역도 이수정의 번역도 넓게는 이전의 번역 전통과 연관됨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동아시아의 번역 전통, 국내의 천주교 번역 전통, 국내의 개신교 번역 전통이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골성서공회본」으로, 「성경원문연구」 42 (2018), 90-114; “성경 번역상 상이한 단어 선택 전략들, 전문성 대(對) 대중성-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빌레몬서 1:9의 ‘presbutēs’ (πρεσβύτερος)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6 (2020), 196-219.

46)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352-354.

47) Ibid., 389.

48) Ibid., 415.

3. 결론

저자는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을 수용, 번역, 해석이라는 광범위한 틀 안에서 통사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의 역사를 초기로, 적어도 천주교로 소급하였다. 그리고 성서신학자와 아시아기독교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귀한 연구물을 내놓았다. 다만 이 책이 사전에 작성된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작성된 것과 달리 대중성과 전문성의 사이에 놓인 측면이 있고, 내용상 중복도 나타났다. 여하튼 한국교회에 있어서 성경 역사 혹은 성경 번역사의 통사가 필요한 마당에 이정표가 되는 책이 될 것이다.

본서는 최근에 간행되었지만, 오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적극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최근에는 성경 번역학, 아시아기독교사학, 양자를 아우르는 통섭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장차 이런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또한 20세기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성경 번역에, 특히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성경 번역에 적극 참여한 내용을 담은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사가 출간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선교사로서 현지의 성경 번역에 참여한 지도 꽤 세월이 흘렀다. 그 분야에도 본서는 귀한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평자는 이 서평을 빌어 성경 번역학을 진일보하는 일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 성경 번역은 경전 번역으로 눈을 돌리면, 국내에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세계종교는 물론이고 동학/천도교 등 민속종교의 경전 번역과도 연관될 수 있다. 특히 경전 번역에 있어서 한글 활용은 비단 기독교만의 일이 아니다. 또한 세계 학계를 돌아봐도, 번역에 소극적이던 라마불교, 이슬람교도 다양한 번역 작업에 나서고 있다. 장차 이런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성경 번역의 전통이 이어지고, 세계 경전 번역학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주제어>(Keywords)

한글 성경, 천주교, 개신교, 번역, 수용, 해석.

Korean Bible, Catholics, Protestants, Translation, Reception, Interpretation.

(투고 일자: 2025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21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현우, 김석주, “이벽의 「성교요지」(聖敎要旨)는 위조문헌인가?”, 「기독교사상」 729 (2019), 21-31.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편, 『조선시대 서학 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파주: 경인문화사, 2020.
- 박인희, “『성경직해광익』과 초기 한국 기독교의 공동체적 전망”, 「성경원문연구」 50 (2022), 234-260.
- 배현숙, “17·8세기에 전래된 천주교서적”, 「교회사연구」 3 (1981), 3-45.
- 서양자, 『중국천주교회사 베일을 벗기다』, 서울: 순교의맥, 2023.
- 서원모, “『성경직해』(聖經直解)의 성경해석과 교부·고전 문헌 인용 양상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69 (2024), 143-186.
- 서원모, 곽문석, “17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의 복음서 한문 번역 연구: 『天主降生言行紀略』, 『天主降生聖經直解』와 『天主降生出像經解』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9:2 (2017), 115-157.
- 설련(薛蓮), “만주어 『신약전서』 - 중국 대련 도서관 소장본 -”, 송강호 역, 「성경원문연구」 30 (2012), 249-262.
- 송강호, 『만주어 그리스도교 문헌 연구』 서울: 지식과교양, 2023.
- 안교성, “성경 번역상 상이한 단어 선택 전략들, 전문성 대(對) 대중성-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본의 빌레몬서 1:9의 ‘presbutēs’ (πρεσβύτερος)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6 (2020), 196-219.
- 안교성, “현대 몽골어 성경 번역에 관한 한 소고: 「몽골성경번역위원회본」에서 「몽골성서공회본」으로”, 「성경원문연구」 42 (2018), 90-114.
- 안종찬,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의 전례기도생활: 전례서와 기도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6.
- 오근, “초대 조선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임명으로 인한 다양한 상황들”,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3.
- 원순옥, “『성경직해』의 특수 어휘 연구”, 「한국말글학」 30 (2013), 121-142.
- 원재연, “18세기 후반 북경 천주당을 통한 천주교 서적의 조선 전래와 신앙공동체의 성립”, 「동양한문학연구」 30 (2010), 53-81.
- 이성우, “한국인의 주체 의식과 성서 번역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 천주교회의 우리말 성서 번역사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5 (2003), 33-60.
- 이주연, “「중국천주교회사 베일을 벗기다」 펴낸 서양자 수녀”, 「가톨릭신문」 2023.11.19.,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311140220019> (2025. 01.30.).
- 이효림, “중(中)·한(韓) 성서 번역의 역사와 십계명(출 20:1-17) 번역의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2018.

- 정중호, “17-18세기 한국 선교와 지혜문학: 『칠극』, 『기인십편』, 『성경직희』를 중심으로”, 「선교와신학」 39 (2016), 297-326.
- 정중호, “18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19:4 (2013), 318-347.
- 정중호, “18세기 이전 창세기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20:2 (2014), 12-40.
- 정중호, “19세기 구약성경 번역과 해석의 역사 - 『고경』(『고성경』)과 『성교감략』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68 (2015), 7-41.
- 정중호, “19세기 이전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21:2 (2015), 65-90.
- 정중호, “고려시대 기독교”, 「신학사상」 160 (2013), 109-130.
- 정중호, “한문성경기(漢文聖經期)와 성경 해석”, 「신학사상」 165 (2014), 91-126.
- 조광, 『역주 사학징의 I』, 서울: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1.
- 조광, 『역주 사학징의 II』,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2022.
- 조원, “원제국의 법제와 고려의 수용 양상”, 남중국 외, 『몽골 평화시대 동서문명의 교류: 아비뇽에서 개경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304-306.
- 조현범, “한글 활판본 『성경직해』에 나타난 번역상의 특징”, 「장서각」 42 (2019), 270-301.
- 최중복, “천주교 서적이 초기 한국천주교회 순교복자들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 - ‘요화사서소화기’에 기록된 천주교 서적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5.
- Nicolini-Zani, M., *The Luminous Way to the East: Texts and History of the First Encounter of Christianity with Chi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 Ross, A. C., *A Vision Betrayed: the Jesuits in Japan and China 1542-1742*, Maryknoll: Orbis, 1994.

<Abstract>

**Book Review - *300 Years of History of the Korean Bible:
Histor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Joong Ho Chong,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2022)**

Kyo Seong Ahn
(Presbyterian University)

In general,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has been assumed to begin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Protestant missionaries, together with Korean coworkers, commenced to agonize themselves in translating the Bible into Korean language, which is famous for defying acquisition by foreigners. However, this new book entitled ‘300 Years of History of the Korean Bible: Histor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ttempts to overturn the established theory that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kept pace with that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Instead, the author argues that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needs to extend back over the centuries, at least to the 17th or 18th century, in order to include the hitherto neglected Catholic effort to translate the Bible. In fact, the Protestants aimed at translating the Bible itself, whether books or the whole of the Bible, as a prioritized missionary work. Meanwhile, the Catholics targeted translating Chinese Christian books and writing Korean apologetic and devotional books, and thus they translated Biblical verses or paragraphs, not books or the whole of the Bible, only when necessary for literary mission. In short, Catholic Bible translation took place mainly in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rather than intentional translation.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Catholic missionaries and the Korean self-evangelized believers read, memorized, and interpreted the Chinese Bible which they understood thoroughly capitalizing the benefit of the Sino-culture Sphere in Northeast Asia, and that they translated the portion of the Bible into Korean language when they translated and wrote Catholic literature.

In this context,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wider perspective ranging from appropriating, translating, interpreting, and writing, not limiting itself to Bible

translation proper only. The author introduces widely the Chinese books which the Korean Christians used, the Korean books which they wrote, and the Bible which they translated. In particular, the author, a renowned Old Testament scholar, explains how the Korean Christian writers interpreted the Bible in their literary works, which is the author's main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of Korean Bible translation. Interestingly, the legacy of the Catholic translation has been inherited by next-generation Catholics as well as Protestants in the 19th century. Another book on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whether by the author or another, is to be published, which will also deal with the 20th century, when Protestant translation mission reached its peak.

<부록 1> 사학정의 요화사서소화기 목록

(서적명은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하여 5개씩 배열했다.)

조광, 『역주 사학정의 II』, 286-310을 참조.

2. 요사한 그림과 사학 서적을 태워 버린 기록 (목록 중 서적 및 문건 위주, 물건 및 제목 불명 문건과 낱장 문건은 생략, *표는 한문서적)

1) 한신애([韓]新愛)의 집에 파묻혀 있다가 압수된 사학 서적
*제송초, *수진일과, *미사, *성경일과[한문본에 한글 주석], 교요서론, 주교요지, *노릉좌명일기, 고해요리, 성경직해, *성경광익, 성경광익직해, 성교천설, *적죄정규, *묵상, *묵상지장, 묵상지장, *규잠, *삼문답부십계, *규람, 기유청장역후등언서(己酉靑粧曆後臚諺書; 책 제목이 아니라, 기유년 역서 안쪽에 베껴 쓴 푸른색 표지의 한글책이란 의미)
예미사규정, 성모시해명도회규인, 오상경규정, 성녀간디다, 주년첨예주 일고정규정,
요리문답.

2) 포도청이 한신애의 집에서 압수해 온 문서
*성호경, 사경언등(邪徑諺謄; 책 제목이 아니라, 한글책들을 끈으로 묶은 것이란 의미).

3) 도화동 여인 홍씨 집을 뒤져서 가져온 책자
*천주교, 조선종인, 성인열품도문, 범례, 예수성탄첨례, 오배례, 예수성호, 바라기리, 주년첨례.

4)-7), 10), 12), 15) 해당 사항 없어 생략

8) 정광수(鄭光受)의 집에서 압수해 온 물건 기록
*사서수진(邪書袖珍; 책 제목이 아니라, 수진일과 3권이 하나의 책갑 안에 있다는 의미).

9) 최경문(崔景門)의 집에 숨겨 둔 사학 서적
요리문답(제목이 한문이나, 한글서적), *주년첨례.

11) 윤현(尹鉉)의 집 방구들 속에서 발굴해 가져온 요사한 초상과 사학서적에 관한 기록

*성경광익, *칠극, 예비, 성세추요, 요리문답,
천주교요, 성표덕서, 고해요리, *일과초, *교요서론,
*성경직해, 성교천설, *수난시말, 성표례리, 봉재후,
성사승전, 예수성탄, 성모매괴, 묵상지장, 예수수난도문,
성경직해, 천신도문, 묵상제의, 성녀위도리아, 성교일과,
천주십계, 보미사주교, 송경전어, 여수성탄[예수성탄, sic.], 침례단,
*소원편, 경성희례, 주년침례주일공경, 성사칠적, 수난시말,
천주성교일과, 성모매괴경, 성심규정, 고해성찬, 지기돈은,
성모염주묵상, 성종도, 전상, 성교칠설, 성모시해,
긴요, 성년광익, 경언, 성녀테레사[성녀테레사, sic.], 공경규정[공경규경,
공경규정은 추정],
향수보본명성, 연옥도문, 죄인지충일기, 묵상식양, 공경예수성심,
성도예례[성도예의, sic.], 성녀아가다, 제서침례[제성침례, sic.; 저성침
례], 성종도보, 향야소성영송[향례주성영송, 향야소성영송은 추정],
십이면, 신공요범, *구역서중등사서(舊曆書中謄邪書; 책 제목이 아니라,
옛 달력에 베껴 쓴 사학 서적이란 의미), 아요상제, 태환술,
예수도문, 사상난, *명도회규, *당판소책(唐板小冊; 책 제목이 아니라, 중
국에서 찍어낸 소책자라는 의미), *묵상지장,
*천주성교일과, *요리문답, *성호경, *사말론, *여리살레,
*성안덕록, *일과규정략, *청성호도문, *묵상, *성모매괴경,
*법언, *진복직지, *주보성인단인출소지(主保聖人單印出小紙; 책 제목
이 아니라 주보성인단을 찍어낸 작은 종이란 의미), *환희, *단일.

13) 군기시 앞(군기사 앞, sic., 軍器寺前) 김희인의 집에서 수색하여 가져
온 사악한 그림과 요사한 책의 목록

성해예의, 묵상지장서, 성모매괴경, 예수성탄[예수성탄, sic.], 예수수난도문,
성경광익, 공경일과, 이에 왕하심[이에 왕호심, 추정], 요리문답, 성녀아가다,
성예수성호, 성부마리아[聖婦瑪利亞], 성체문답, 천주성교도문, 언교,
성교일과, 유시마리가, 언문등서건기(諺文謄書件記; 책 제목이 아니라,
한글로 베껴 쓴 문서 목록이란 의미).

- 14) 조조이[曹召史, sic.; 조소리[曹召吏]?, 이두 문자] 집에서 수색해 가져온 물건
언등사경(諺謄邪經; 한글로 쓴 사학 경문).

<부록 2> 최중복의 사학징의, 요화사서소화기 분류

최중복, 논문 중 「표 8」과 「표 9」

(「표 8」과 「표 9」의 서적명 중 오류는 <부록 1>과 비교할 것)

- 「표 8」 1801년 당시 형조에 압수(押收)된 한글본 교회서적 (총 83종, sic.; 85종)
성서(3): 성경직해, 성경광익, 성경광익직해,
전례서(11): 예미사규정, 보미사주교, 주년침례, 주년침례주일, 주년침례
 주일공경,
 예수성탄, 예수성탄침례, 봉제후, 제성침례, 침례단,
 수난시말,
성사서(6): 성사칠적, 성교칠설, 성체문답, 고해요리, 고해성찬,
 성사승전,
기도서(19): 성교일과, 천주성교일과, 공경일과, 십이면, 오배례,
 예수성호, 성예수성호, 천주십계, 성모매괴경, 성모매괴/천주
 성도문[10번 번호 중복],
 예수도문, 예수수난도문, 천신도문, 성인열품도문, 연옥도문,
 향예수성영송, 조선종인, 송경권어, 오상경규정,
신심묵상서(14): 묵상지장, 묵상지장서, 묵상제의, 묵상식양, 긴요,
 신공요범, 사상난, 공경예수성심, 성심규정, 성모염주묵상,
 경언, 공경규경, 향수보본명성, 예비,
교리서(5): 교요서론, 천주교요, 성세추요, 주교요지, 요리문답,
성인 등 전기(14): 성년광익, 성부마리아, 성종도, 성종도보, 성녀간가다,
 성녀더리사, 성녀아가다, 성녀위도리아, 성회례의, 성도예리,
 성표덕서, 성표례리, 성모시해/유시마리가[13번 번호
 중복], 죄인지충일기,
기타(11): 명도회규인, 성교천설, 경성회례, 대기도은, 바라기리,
 아요상제, 태환술, 이에왕호심, 전상, 언교,
 범예.

「표 9」 1801년에 압수(押收)된 한문(漢文) 천주교서적 (총 37종)

성서(3): 聖經直解, 聖經廣益, 聖經日課,

전례서(5): 彌撒, 與理撒禮, 周年瞻禮, 瞻禮日記錄, 受難始末,

기도서(11): 天主聖敎日課, 日課規程略, 袖珍日課, 日課抄, 諸頌初,

聖號經, 請聖號禱文, 十誡, 聖母玫瑰經, 歡喜,

端一,

신심묵상서(7): 默想指掌, 滌罪正規, 七克, 眞福直指, 溯源編,

四末論, 默想,

교리서(4): 天主教, 要理問答, 三問答, 敎要序論,

성인전기(3): 聖安德助, 主保聖人單, 老楞佐命日記,

기타(4): 明道會規, 法言, 閨箴(규감, sic.; 규잠), 閨賢上(규현상, sic.; 규람
(閨覽) 상[권]).

<부록 3> 조선시대 서학 자료 목록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편, 『조선시대 서학 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참조

권호명: 1

총서 - 천학초함(天學初函),

종교 - 교우론(交友論), 교요서론(敎要序論), 동유교육(童幼敎育), 기인십
편(畸人十篇), 변학유독(辨學遺牘),

사말진론(四末眞論), 삼산논학기(三山論學紀), 서유이목자(西儒
耳目資), 성년광익(聖年廣益), 성교절요(聖敎切要),

수진일과(袖珍日課), 서학범(西學凡), 영언여작(靈言蠡勺), 영혼도
체설(靈魂道體說), 이십오언(二十五言),

주교연기(主教緣起), 주제군징(主制羣徵), 제가서학(齊家西學), 진
도자증(眞道自證), 진복직지(眞福直指),

진정서상(進呈書像), 천주성교백문답(天主聖敎百問答), 천주성교
십계직전(天主聖敎十誡直註), 척죄정규(滌罪正規), 천주실의(天
主實義),

칠극(七克),

과학 - 곤여도설(坤輿圖說), 공제격치(空際格致), 어제올려정의속편(律呂
正義續編), 직방외기(職方外記), 천문략(天問略),

지도 - 17세기 예수회 선교사 저작 지도류(地圖類) 개관.

권호명 : 2

종교 - 만물진원(萬物眞原), 성경직해(聖經直解), 성세추요(盛世芻蕘), 역이충언(逆耳忠言), 천신회과(天神會課),
천주강생언행기략(天主降生言行紀略),
과학 - 기하원본(幾何原本), 건곤체역(乾坤體義), 동문산지(同文算指), 수리정온(數理精蘊), 숭정역서(崇禎曆書),
신제영대의상지(新製靈臺儀象志), 역상고성(曆象考成), 역상고성후편(曆象考成後編), 원서기기도설록최(遠西奇器圖說錄最), 태서수법(泰西水法),
태서인신설개(泰西人身說概),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

권호명 : 3

논저 - 기해일기★, 돈와서학변(遯窩西學辨), 벽위편(關衛編)-이기경, 벽위편(關衛編)-이만채★, 사학징의(邪學懲義),
상재상서(上宰相書)★, 성교요지(聖敎要旨), 이학집변(異學集辨)★, 자책스살꾸지(자책스슬꾸지), 정속신편(正俗新編)★,
주교요지, 지구전요(地球典要)★, 천학문답(天學問答),
논설 - 벽사변증기의(關邪辨證記疑)★, 벽사론변(關邪錄辨), 벽이단설(關異端說), 양학변(洋學辨), 양화(洋禍),
우기답인지어(又記答人之語), 증의요지(證疑要旨), 진도자증증의(眞道自證證疑), 척사교변증설(斥邪教辨證說).
★된 자료는 서(序), 발(跋)을 번역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권호명 : 4

논저 - 가학벽이연원록(家學關異淵源錄)★, 벽위신편(關衛新編), 성기운화(星氣運化), 시헌기요(時憲紀要), 역학이십사도총해(易學二十四圖總解),
원도고(原道攷)★, 의기집설(儀器輯說), 의상리수(儀象理數), 척사론(斥邪論)★, 척사설(斥邪說)★,
추보속해(推步續解), 추보첩례(推步捷例), 현상신법세초유휘(玄象新法細草類彙),
논설 - 성세추요증의(盛世芻蕘證疑), 안순암천학혹문변의(安順菴天學或問辨疑), 운교문답(雲橋問答), 천학교(天學考), 천학문답(天學問答),

천학설문(天學設問).

권호명 : 5-1

문집 - 가오고략(嘉梧藁略), 간옹집(艮翁集), 강재집(剛齋集), 강한집(江漢集), 고산집(鼓山集),
공백당집(拱白堂集), 과재유고(過齋遺稿), 과재집(果齋集), 극원유고(屨園遺稿), 근와집(近窩集),
금릉집(金陵集), 나산집(蘿山集), 남당집(南塘集), 도곡집(陶谷集), 동계집(東谿集),
동림집(東林集), 만각재집(晩覺齋集), 무명자집(無名子集), 성재집(省齋集), 성호전집(星湖全集),
순암집(順菴集), 여와집(餘窩集), 연암집(燕巖集), 일암집(一菴集), 청천집(靑泉集),
홍재전서(弘齋全書), 회병집(晦屏集).

권호명 : 5-2

연행록 - 갑인연행록(甲寅燕行錄), 갑인연행별록(甲寅燕行錄別錄),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識), 계산기정(薊山紀程),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
북원록(北轅錄), 연원직지(燕輦直指), 연행기(燕行紀), 연행기사(燕行記事), 연행록(燕行錄)-김순협,
연행록(燕行錄)-김정중, 연행일기(燕行日記)-김창업, 연행일기(燕行日記)-이항익, 열하기유(熱河紀遊), 유연고(游燕藁),
음빙행정력(飲氷行程曆),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 일암연기(一庵燕記), 임자연행잡지(壬子燕行雜識),
백과전서 - 성호사설(星湖僊說), 임하필기(林下筆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지수염필(智水沾筆),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호명 : 6

문집 - 구라철사금자보(歐邏鐵絲琴字譜), 노주집(老洲集), 매산잡지(梅山雜集), 매산집(梅山集), 명곡집(明谷集),
번암집(樊巖集),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 봉서집(鳳棲集), 비례준(脾禮準), 사고(私稿),
서포연보(西浦年譜), 선구제(先句齊), 소재집(疎齋集), 시헌기요

(時憲紀要),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유계집(柳溪集), 이계집(耳溪集), 이재난고(頤齋亂藁), 이재유고
(頤齋遺藁), 좌소산인집(左蘇山人集),
주영편(晝永編), 표암집(豹菴集), 흙영(欽英).